

거짓말 많은 사회는 발전 못해

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 지비회사일등국이라는 것은 배푸는 불교가 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윤리도덕일등국이라는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마지막 타국고수일등국은 우리 한국불교가 보다 빠르게 보다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조차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선교교를 두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분별상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거든. 말 없이 마음을 드러낼 수 없고 마음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말로써 드러낼 것이 없는데 그 뜻을 굳이 말이나 마음이나 분별하고 달리 분단 말아야.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지. 하나라는 분별마저 초월해야지. <법화경>에서도 색심(色心)을 둘이 아니게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도 <법화경>의 가르침이 가장 폭넓고 깊게 연구되고 법화행자가 많은 한국불교가 이 귀한 정신을 세계에 퍼뜨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내 서원이야.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지만 통일만 이루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거든.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서원은 한국불교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해탈을 위해 이 지구촌이 그대로 일등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묘각 스님이 도서출판 간경도감을 운영한 이유도 이 서원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 <법화경>에 매료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춘원이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당시 큰스님들이 말했다. 불교의 깊은 교리와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본 것이다.

“나는 그게 늘 안타깝게 생각해. 춘원의 그 좋은 문장으로 번역하게 하고 당시의 큰스님들이 교정을 좀 봐줘서 책을 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접했겠는가 말야. 춘원의 시대에 춘원의 글은 가장 큰 파력이 있었잖아.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니가 세상은 점점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거든. 잘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야. 땅을 흐르는 강은 여러 줄기를 이루지만 다 한 바다로 모여 한 물이 되거든. 진리의 합일이란 그와 같은 거야.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아 중단하고 있지만, 나는 원호 대사·세종대왕·세조 등과 <법화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연구해서 출판하고 싶어. 할 일은 많고 세월은 빨리 흐르니 무슨 일이든 마음만 간절하지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묘각 스님은 ‘실상(實相)’이라는 이치를 알면 깨달음의 삶도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속임수가 없는’ ‘진실 그 자체’의 의미다. <법화경>을 <실상묘법연화경>이라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기에 어떻게 생각할 것은 없다.

“다만, 중생의 삶은 착하고 진실하게 이어지기가 어려울 뿐이지. 순간순간의 유희와 탐욕이 본래의 불성을 가리니까.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위장하는 사회는 절대 부유해질 수 없어.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고 부정직한 짓을 하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사회가 발전되리라 기대할 수 없잖아? 거짓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실상이지 다른 게 아니야.”

묘각 스님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중심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실상의 삶을 가르치는 <법화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이란 하늘과 땅을 밝히는 거울이다.

법정 스님의 입적으로 세상이 불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죽음이 가장 절절한 법문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 사대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루어지면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것은 다시 인연을 모아 생성되니. 있다고 하여 영원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닌 도리를 알아야지.”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순간 되새김질해야 할 가장 요긴한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일까?

“<법화경> ‘여래선력품’에 필경주일승(畢竟住一乘)이란 말이 나와. 실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일승에 머물게 한다는 거야. 참됨, 정직 앞에서는 어떤 운명론도 발을 붙일 수 없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해. 그 이상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 없어. 참된 길이라면 성큼성큼 걸어가야 하고 참담지 못한 것은 따르지 않으면 되거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면 반드시 일승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어.”

맑은 날은 멀리 무등산이 보인다는데 회부연 봄바람이 무등산을 가리고 있었다. 보이는 만큼만 보고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진짜 무등(無等)이라는 설법이다. 실상을 실상으로 보는 지혜다.

글·사진=임연태(사인·본지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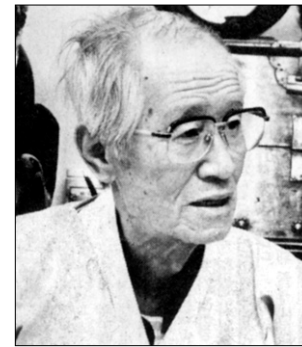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8. 미산 홍정식 박사

충남 공주 출신인 미산(米山) 홍정식 박사(1918~1995)는 태어날 때 이미 불자였다. 부모 모두 독실한 불자인 까닭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스스럼없이 불교를 접했던 것이다. 양친을 따라 자주 절에 다닌 그에게 사찰 마당만 높이거나 다름없었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 전신)에 입학하면서부터다.

홍정식 박사는 무명과 탐욕을 버리고 지혜를 찾기 위해 경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불교학자의 길을 걸으며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열을 쏟았던 홍정식 박사는 후학들에게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자 불교학자라고 생각한다면 잠도 안자고 수행하던이 면 아나을 존자처럼 온몸을 바쳐 공부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 한국불교학회를 창립한 것도 이 무렵이다. 1973년 7월, 학회가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초대회장을 맡은 뒤 10여 년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교학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미산은 부처님을 신비화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이란 측면에서 일생과 그 가르침에 대해 설명했다.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할 때에도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홍 박사는 율(律)을 중요시 여겼다. 수행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청정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지만, 지키지 못할 계율을 그대로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홍 박사는 “계는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키지 못할 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와 사회에 대한 기

‘법화경’에서 화합 발견… “못 지킬 계를 갖는 것은 기만”

1958년 경기도로 자리를 옮긴 홍정식 박사는 천태학과 대승불교사상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1961년 동국대에 발탁됐다. 이후 1983년까지 22년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그는 특히 <법화경> 연구에 매진했다.

홍정식 박사는 정화개혁이 시작되고 비구·대승승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지만, 양측의 태도를 이념적으로 통합해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다. 그러다 <법화경>을 읽고 눈이 번쩍 뜨였다. <법화경>의 중심사상이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승(菩薩乘)이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간다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을 깨달은 후부터 그는 <법화경>에 관한 연구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부처님께 기원하는 발원문을 좋아했던 홍정식 박사는 방학 때면 며칠씩 합천 해인사에 내려갔다.

홍 박사는 “조석항등륜불전(朝夕香燈獻佛前)”으로 시작하는 지월 스님의 행선축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척 감동받았다. 이른 새벽 가만히 축원을 듣고 있으니 삼계가 조용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스님의 행선축원을 들려고 일부러 해인사를 찾아가는 게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1964년 동국여경원이 개원하자 역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전 한글화 작업에 동참하며,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1970년대에 미산은 대중포교에 눈을 돌렸다.

홍 박사는 “한국불교가 산중불교를 탈피해 대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불전 지도법사를 비롯해 1975년 1월 개설된 삼보불교고양대학의 초대학장을 맡아 현대적인 교육으로 불자들을 가르쳤

만”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과 계율의 정신도 존중해야 하지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계율의 새로운 해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을 엄격히 구분했다. 실천이 따르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허공과 땅의 경계만큼 명확하다는 것. 미산은 ‘하심(下心)’을 ‘증득’으로 봤다. 부처님이 말한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곧 청정심을 갖는 것이고, 청정심은 하심과 맞닿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홍 박사와 친분이 두터웠던 미당 서경주 시인은 “천년을 맺힌 시름을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고운 강물이 흐르듯 하이 나른다”는 화갑시를 지어 주기도 했다.

홍 박사의 청정결백함은 눈서리리하고 깨끗했다. ‘미산장학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동국대 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범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윤택하며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안전지침: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 ▶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등 (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